



## 스위스재보험, 2008년 재해 관련 사망자 수 238,000여명, 보험손실액 500억 달러로 증가 추정

### Contact:

Rudolf Enz, Zurich  
Telephone +41 43 285 2239

Thomas Holzheu, New York  
Telephone +1 212 317 5190

Clarence Wong, Hong Kong  
Telephone +852 2582 5644

Media Relations, Zurich  
Telephone +41 43 285 7171  
Swiss Reinsurance Company  
Mythenquai 50/60  
P.O. Box  
CH-8022 Zurich

Telephone +41 43 285 2121  
Fax +41 43 285 2999  
www.swissre.com

**2008년 12월 18일** - 스위스재보험은 조만간 발표될 재해 관련 시그마 연구에서 **2008년**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**238,000명**이 넘는다는 초기 추정치를 발표했다. 이러한 사망자 수는 **1970년** 이래 **4번째로** 높은 수치이다. **2008년**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**2,250억 달러** 수준으로, 이 중 중국 스촨성 지진 관련 비용이 **850억 달러**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. 전체 비용 중 재물보험의 손해가 **500억 달러**를 차지, **2008년**은 보험손실 기준으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손실이 난 해가 되었다.

2008년에 발생한 대형 재해로 안타깝게도 238,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. 2008년 5월 초 미얀마를 덮친 열대성 사이클론 나르기스(Nargis)로 인해 138,400명이 사망하였으며, 이는 2008년 최대 규모의 인명손실이었다(하단의 표 2 참조). 두 번째로 큰 인명손실을 기록한 것은 나르기스에 이어 5월 중에 발생한 중국 스촨성 지진이었다. 이 지진으로 87,400명에 달하는 인명피해와 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다. 나르기스 및 스촨성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의 대부분은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.

### 손해보험사 보험금 지급규모 500억 달러 수준 추정

2008년 재해로 인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규모는 5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며, 이에 따라 2008년은 보험업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손실을 기록한 해가 될 전망이다. 전체 보험금 중 430억 달러가 자연재해 관련 지급분으로, 이 중 폭풍우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390억 달러에 달한다. 미국 및 카리브해 연안에 발생한 허리케인은 기록적인 손실이 초래했으며, 특히 허리케인 아이크(Ike)와 구스타프(Gustav)는 각각 200억 달러, 40억 달러의 보험손실을 기록했다. (보험손실액에는 재물, 자동차, 해상 피해 및 NFIP(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)에서 보장되는 홍수피해액이 포함된다.) 유럽에서는 겨울폭풍 엠마(Emma)로 14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으며, 이는 2007년 겨울폭풍 키릴(Kyrrill)로 인한 손실액 60억 달러에 비해 상당히 적은 규모이다.

**인적재해 관련 보험금 지급액 70 억 달러**

2008 년에도 보험업계는 인적재해와 관련, 상당한 규모의 보험손실을 보장해야했다. 폭발 및 대규모 화재로 인한 손실규모는 48 억 달러에 달했다. 이 중 산업설비물 및 창고시설의 피해액이 21 억 달러이며, 석유 및 가스 관련 사고(허리케인으로 인한 해상 피해 제외)로 인한 보험손실액도 15 억 달러를 기록했다.

**2008 년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2,250 억 달러 규모**

2008 년 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,250 억 달러에 달한다. 이수치는 건축물, 기간시설 및 차량에 대한 보험 및 비(非) 보험 손실액이 모두 포함한다. 스완성 지진으로 인한 손실액은 850 억 달러로 최대 규모였다. 두 번째 큰 손실을 기록한 재해는 허리케인 아이크(400 억 달러)이며,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눈 폭풍 및 얼음비(freezing rain) 손실액이 그 뒤를 이었다(200 억 달러).

인재 중에는 2008 년 6 월 서호주 지역 바라누스 섬(Varanus Island)에서 발생한 파이프라인 파손사고가 가장 큰 피해규모를 기록했으며, 이 사고로 업계 및 지역경제가 최소 180 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.

**표 1: 2008 년 최대 보험처리 손실액 목록**

순위	보험 손실 (단위: 미화 100 만 달러)	발생일자(시작 일)	재해 유형	국가
1	20,000	2008.09.06	허리케인 아이크(Ike)	미국, 카리브 해 연안국가
2	4,000	2008.08.26	허리케인 구스타프(Gustav)	미국, 카리브 해 연안국가
3	1,389	2008.02.29	겨울폭풍 엠마(Emma)	독일, 호주, 체코공화국 외
4	1,325	2008.05.22	토네이도, 강우, 우박	미국
5	1,300	2008.01.10	눈 폭풍, 얼음비(freezing rain)	중국
6	1,100	2008.05.29	뇌우, 강풍, 우박	미국

**표 2: 2008 년 최대 사망자 발생 재해 목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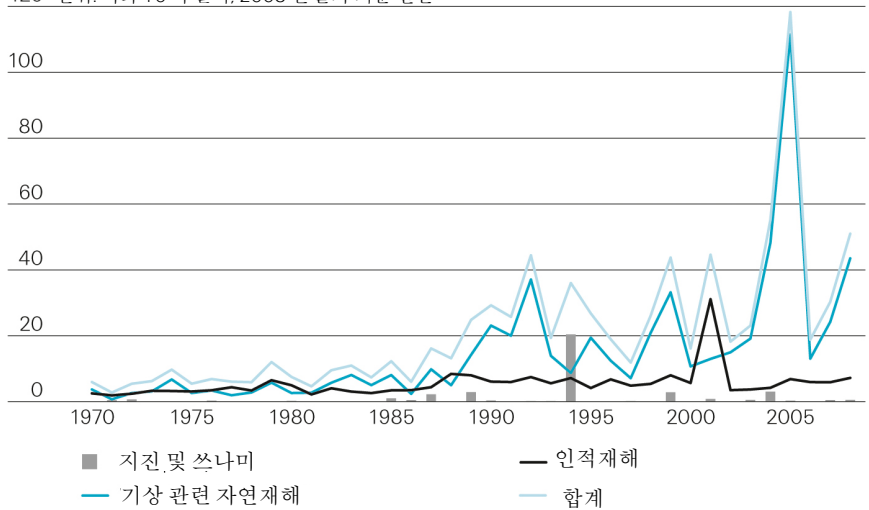
순위	희생자 (사망 및 실종)	발생일자(시작일)	재해 유형	국가
1	138,373	2008.05.02	열대성 사이클론 나르기스(최대풍속: 200km/h)	미얀마(舊 버마)
2	87,449	2008.05.12	지진(진도: 7.9) 및 여진	중국
3	1,413	2008.06.19	제 6 호 태풍 평선(최대풍속: 140km/h)	필리핀, 중국
4	1,300	2008.01.05	대규모 강설, 한파	아프가니스탄
5	>500	2008.09.01	허리케인 한나(최대풍속: 130km/h)	아이티, 카리브해 연안국가, 미국

**표 3: 1970 년 이후 최대 재해 피해연도**

순위	보험 손실액			사상자 수	
	연도	(단위: 미화 100 만 달러)	2008 년 물가 기준 환산액(단위: 미화 100 만 달러)	연도	
1	2005	107,024	118,084	1970	374,042
2	2008	50,768	50,768	1976	311,516
3	2004	48,206	54,996	2004	242,506
4	2001	36,457	44,375	2008	238,466
5	1999	33,624	43,505	1991	162,339

**1970~2008 년 보험처리 재해 손실액**

120 단위: 미화 10 억 달러, 2008 년 물가 기준 환산



\* 2008: 잠정 추정치

출처: 스위스재보험, 2008 년 재해 관련 손실액에 대한 시그마 예비추정치

시그마 보고서 재해통계 용어 정의	
자연재해	자연현상으로 인한 손실사건
인적재해	인간의 활동과 연관된 손실사건
총손실액	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가져오는 손실
재물보험 손실액	총손실액 중 재물보험으로 처리된 금액
사고 선정 최저기준(하기 기준 중 택 1)	
총손실액	미화 8,550 만 달러
재물보험 손실	해운: 미화 1,720 만 달러 항공: 미화 3,440 만 달러 기타: 미화 4,270 만 달러
인명피해	사망자 및 실종자: 20 부상자: 50 이재민: 2,000

편집자 주

#### 스위스재보험

스위스재보험은 세계 최대의 다각화된 글로벌 재보험사 중 하나로 전세계 25 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. 스위스재보험은 1863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. 손해보험 상품,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.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(Standard & Poor's)로부터 'AA-' 를, 무디스(Moody's)로부터 'Aa2' 를, 에이엠 베스트(A.M. Best)로부터 'A+' 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.

스위스재보험은 1913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9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 지역 본부는 홍콩에 있다. 2006년 스위스재보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첫 사무소를 개설한지 50년을 맞이했다.